

올해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가 탄생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의 핵심기술로 강조하고 나섰다.

“자바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핵심 기술”

탄생 20주년 자바, “자바 9으로 제2 도약”

한국오라클 “자바, ‘센서부터 서버까지’ IoT 시대 강점”

한국오라클 ISV·OEM 사업부 최윤석 전무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센타워 한국오라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oT 시대에 서버를 비롯해 작은 센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자바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1995년 탄생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자바는 그동안 정보기술(IT) 환경 구축의 중심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시작된 최신 개발 언어의 등장 속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시대에 언어로서의 자바가 뚜렷한 장점을 갖지 못한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섀미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로 자바의 지적 재산권(IP)을 가진 오라클은 자바가 여전히 강력한 개발 언어라고 주장한다. 자바8으로 시작된 플랫폼 재정비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바 8부터 SE가 ME의 일부를 포함하기 시작해 내년 출시될 예정인 자바9에서는 ME가 SE에 완전히 통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 개발자가 서버와 작은 센서 관련 프로그래밍까지 다룰 수 있게 돼 IoT 시대에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오라클 최윤석 전무는 “과거의 자바는 서버사이드와 디바이스 사이드에서 같은 언어 스펙을 사용하지만, 다른 API를 써야 했다”며 “이동의 자유도가 떨어졌던 것인데, 자바 8으로부터 로직의 위치를 서비스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위치를 쉽게 옮겨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자바 9은 JVM까지 최소한의 모듈로 조합할 수 있게 돼 디바이스 제한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바 9은 직소(Jigsaw)란 모듈화 프로젝트를 통해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자바실행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콤팩트 프로파일러란 콘셉트를 제공해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특정기능 모듈만 조합하고, JVM에서 따로 경량화해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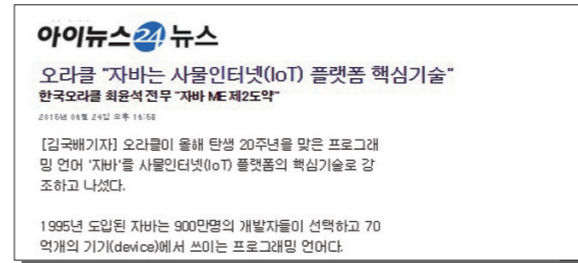
한국오라클의 김태완 컨설턴트는 “특정 기능에 최적화된 자바 런타임을 제공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며 “작은 디바이스에 자바나 앱을 올릴 때 매력적인 콘셉트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바의 또 다른 강점으로 최 전무는 ‘활용성’을 들었다. 자바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얹어 다른 활용도를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펜으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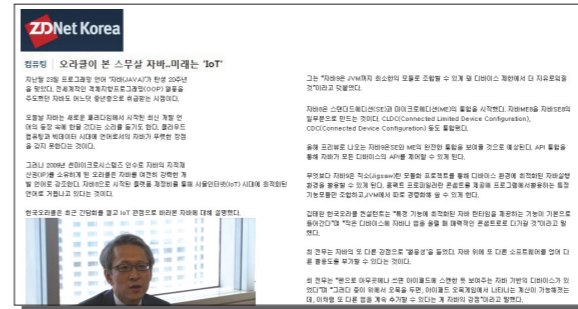
2015. 06. 24
뉴스1

한국오라클 “자바, ‘센서부터 서버까지’ IoT 시대 강점”



2015. 06. 24
아이뉴스24

오라클 “자바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핵심기술”



2015. 06. 25
지디넷코리아

오라클이 본 스무살 자바... 미래는 'IoT'

무 곳이나 쓰면 아이패드에 스캔한 듯 보여주는 자바 기반의 디바이스가 있었다”며 “그러다 종이 위에서 오목을 두면, 아이패드 오목게임에서 나타나는 계산이 가능해졌는데, 이처럼 또 다른 앱을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자바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최 전무는 “초소형 디바이스에서도 쓸 수 있는 자바와 디바이스 데이터를 중간에서 취합해 노이즈를 걸러내고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필터

링이 가능한 게이트웨이에서 자바가 있다”며 “자바 임베디드 스위트는 오라클이벤트프로세싱(OEP) 임베디드 버전을 포함하는데, 자바 언어 자체가 어느 계층이든 오갈 수 있으므로 필터링 로직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